

생활 음악 문화의 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 독일을 본보기로 -

민 경 훈*

차례

- I. 서론
- II. 문화의 이해
- III. 한국 음악 문화의 총체적 문제점
- IV. '생활 음악'으로서의 음악 문화 환경 조성
- V. 독일의 생활 음악 문화
- VI. 생활 음악 문화의 성장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
- VII. 결론 및 제언

I. 서론

광음처럼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 정신의 사막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감정의 무절제, 폭력 학생들,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들,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의 몰두로 인한 인간 고립화 현상 등, 이 모두가 인간 정신의 사막화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사회 질서는 물론, 학교 질서를 파괴하는 그냥 넘기기에는 심각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앞에서 우리들은 음악 쪽으로 단 5도만 바뀌도 인간 정신의 사막화 현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¹⁾

*경희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1) 안드레아스 도트(Andreas Dödt)는 1986년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들에 있어서 음악의 기여'(Musik-Beitrag zur Lösung heutiger Jugendprobleme)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현대 사회에 독일 '시립 음악 학

오늘날 인간의 정서 생활에 음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음악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져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음악 문화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생활 속에서 음악적 환경을 창출해 보고자 하는 '음악 문화의 환경 조성'이다.²⁾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본질과는 다르게 일상의 음악 생활과 괴리된 과시적이고 호화스러운 음악 문화의 재건에 치우쳐 무엇보다도 올바른 음악 문화의 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와 바람직한 접근 방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음악 문화란 '특권층만이 향유 가능한 것'이 아닌 일반 서민들의 삶의 질로 나타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한국의 음악 문화는 열악한 문화적·경제적 환경 속에서 장소와 공간 그리고 경제적 뒷받침이 없어서 음악을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으로 생각하여 침체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의 음악 문화는 사회 음악 교육 제도를 통하여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활 음악'으로 문화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지역에 있는 사회 음악 교육 기관은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소와 공간을 마련하여 원하는 시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보고, 듣는 음악에서 직접 참여하는 음악으로 유도·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생활 음악' 문화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일련의 적극적인 음악 문화 정책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논문은 문화라는 복합 개념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종개념과 속성, 그리고 음악 문화라는 생활 양식과 생활 음악(Lebensmusik)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징표(徵表)를 밝히고, 생활 음악 문화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일의 사회 음악교육 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의 '생활 음악 문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문화의 이해

1. 문화의 의미

문화라는 개념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 용어 사전은 문화에 대하

교'의 사회 교육적 과제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모든 음악 학교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2) 대표적인 예로 파주의 통일 동산 안에 있는 문화 예술 마을 '헤이리'의 건설을 들 수 있다. 참고: 중앙일보 2001년 5월 21일(월요일).

여 “문화란 넓은 의미에서 교화된 가치라는 뜻을 포함하며, 사회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이 문화라는 용어를 인간 사회 속의 풍습과 제도의 총체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³⁾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더욱 더 세부적으로 세분화하여 문화를 두 가지 관점, 즉 인본주의적 관점과 인류학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다.

1) 인본주의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Humanistischer Aspekt)에서 보는 문화란 ‘인간의 완전성’(Humanistische Perfektibilität)을 표상 하는 심성 상황 또는 사회 전체의 ‘지적 개발’(Intellektuelle Entwicklung)에 관한 일반적 상태 그리고 ‘예술’(Kunst) 등을 의미한다.⁴⁾ 이 해석은 인간의 여러 활동 중 일부만을 문화로 보는 선별적 관점에서 정의된 개념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만유(萬有) 공통의 가치에 근거하여 인간의 활동과 목표들의 여러 가지 양상을 평가한다는 태도가 기초한다. 따라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문화는 인간의 완벽성과 우월성과 관련된 지적 활동, 예술적 활동의 과정과 결과이다. 지적인 측면에서의 문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오성(悟性)적 능력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환경과 다른 인간의 실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깊이와 넓이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2) 인류학적 관점

인류학적 관점(Anthropologischer Aspekt)에서의 문화란 한 시대나 민족의 ‘삶의 방식’ 또는 ‘삶의 양식’을 말한다.⁵⁾ 문화란 어느 한 사회가 시행 착오를 거듭하면서 주어진 환경 조건에 적응하는 역사적 과정인 동시에 그 산물이다. 따라서 각 나라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민속 음악’이나 ‘음악 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여러 가지 생활의 방식 및 양식 중에서 선택한 것이므로 문화의 한 유형인 것이다. 즉 인류가 수백만 년 전에 이 지구 위에 생물 중의 한 종(種)으로 나타나서 각 사회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음악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인 민속 음악이나 음악 생활의 문화는 인류에게 공통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전 세계적인 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음악 문화가 일어남으로써 음악은 인류에게 대표적인 문화가 되고 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본 음악 문화의 개념은 인간 생활의 모든 면과 모든 사회적 유산을 포괄하기 때문에 비 선별적이고, 보

3) 김광식 편저, 문학비평 용어사전, (서울: 일지사, 1980), 72쪽.

4) 이광규, 문화인류학 개론, (서울: 일호각, 1980), 103쪽.

5) 위의 책, 105쪽.

편적이며,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문화의 특성

문화는 선별적인 선택과 삶의 방식에 대한 적응 과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⁶⁾ 특히 이러한 관점은 인류학적 입장에서 정의한 문화의 개념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문화란 어떻게 생활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지혜를 말하므로 여러 사람의 생활 방식이며, 생활 모습이기도 하여, 어떤 사회의 전체적인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양식은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의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설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 생활의 설계라는 것은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서 시행 착오의 경험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유리하고 효과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라는 것으로, 여러 가능한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으로써 사회 생활, 종교 생활 등 생활의 모든 영역을 통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선택한 생활 양식은 하나의 문화로서 이해되고, 이러한 문화라는 개념에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리고 문화를 한 부족이나 민족에 한정시켰을 때, 이것이 특정한 문화가 되고, 이것을 종합하여 인간 전체가 이룩한 삶의 지혜로서의 폭넓은 의미의 문화로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문화는 초개인적인 것이다. 문화를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고, 삶의 지혜라고 했을 때, 문화는 개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의 행위라고 할 지라도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의 인정을 받은 행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는 개인에 의하여 표현되지만, 개인을 초월한 초개인적인 존재이고, 관찰이 가능한 인간의 행위 뒤에 감추어진 추상적인 것이다.⁷⁾

3. 문화의 기능

우선 사회적 집단에 의하여 실현되는 생활 양식인 문화는 그 사회에 속해 있는 개개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세계를 인식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다.⁸⁾ 이러한 점에서 개인은 문화의 산물이기도 한다. 이와 아울러 개인은 문화의 전달성에 의해 성장하고, 사회의 문화를 습득하게 되지만, 동시에 문화를 변동시키고, 문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6) 레이먼드 윌리엄즈, 문화사회학, 설중규·송승철 (역), (서울: 까치, 1984), 91쪽.

7) 위의 책, 93쪽.

8) 루스 베네딕트, 문화의 패턴, 김열규 (역), (서울: 까치, 1980), 57-58쪽.

문화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여 사회 전체의 질서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개인의 집단인 사회 전체를 조절하여 개인들의 여러 욕구를 골고루 충족시키고, 필연적으로 생기는 사회악을 제거·조절하면서 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⁹⁾ 이와 동시에 문화는 사회의 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구성원, 즉 그 사회에서 새로 출생한 사람에게 그 사회의 생활 양식을 학습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구성원이 되도록 한다.

4. 문화의 유형

문화에는 행동이나 사물 등과 같이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나타난 문화’, ‘드러난 문화’(Sichtbare Kultur)가 있고, 가치나 감정 등과 같이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감추어진 문화’ 즉, ‘내재된 문화’(Immanente Kultur)가 있다.¹⁰⁾ 즉, 음악 문화에도 다른 두 측면의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한 면에서의 ‘음악적 환경’으로서의 ‘나타난 문화’가 있고, 또 다른 면에서의 ‘음악적 양식’으로서의 ‘내재된 문화’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문화의 유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의 통합체로서 음악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하나의 문화는 예술 유형에 따라서 음악 문화, 미술 문화, 체육 문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연령이나 사회 계층에 따라서 청년 문화, 성인 문화 또는 지식 문화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¹¹⁾ 이러한 문화 유형을 일컬어 전체 문화를 구성하는 하위 문화(Subkultur) 또는 부분 문화(Partielle Kultur)라고 한다. 또한 전통 사회의 문화인 민속 문화(Volkskultur)가 있다.

Ⅲ. 한국 음악 문화의 총체적 문제점

한국 음악 문화의 현상은 공간적 복합성에서 오는 혼란, 즉 외래 문화와 고유 문화의 혼합에서 오는 이중 구조와 시간적 중복성에서 오는 충격, 즉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의 가치관과 규범이 서로 엇갈리는 환경 속에서의 음악 문화적 충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 음악 문화’라는 문화적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맥락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음악문화적 현상을 올바르게 진단하기 위

9) 위의 책, 60-61쪽.

10) 위의 책, 66쪽.

11) 위의 책, 71쪽.

해서는 음악 문화의 적합성·정체성 그리고 통합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음악 문화의 적합성에 있어서 문제점

먼저 음악 문화의 적합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 나라에는 아직까지 생활 음악의 방식, 즉 음악 생활의 문화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거의 모든 음악 학원들이 피아노 학원 형태이며, 거의 유아를 대상으로 편중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청소년과 성인을 위해 제도화된 음악 학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부설 기관인 사회교육원이나 시민 대학에서의 간단한 음악 활동 정도이다. 미래에는 건잡을 수 없이 이러한 현상이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 특히 신도시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극에 달하여 사회 음악 교육은 상업화로 전락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적합한 생활 음악으로서의 문화 양식을 형성하지 못한 채 그리고 생활 음악 문화에 대하여 동경만 한 채 임기 응변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밑바닥에는 지난 100여 년간의 격동기 속에서 걸로 드러난 외래의 음악 문화와 클래식 음악의 귀족적 특성이 무비판적으로 이식되었던 사실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음악 문화의 정체성에 있어서 문제점

오늘날에는 일종의 문화 부흥을 위하여 적지 않게 전통 음악 문화의 복원과 보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음악 문화의 정체성, 즉 환경과 역사 속에서 축적된 음악 양식의 총체로서, 사실상 문화적 전통을 살려 현재의 환경에 적합한 전통 음악 문화의 유형을 창조적으로 재조명하고, 개발해 나가는 수준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문화 양식으로서 현재의 사회 환경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음악 양식이 되고 있는 문화 전통을 계승·발전시키자는 입장보다는 근본적으로 과거의 전통 사회에 속한 전통 음악 문화에 대한 상당히 감상적인 회고와 복귀를 꾀하는 입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의 정체성 위기는 사회구성원이 식민지화, 사대주의적 외래 문화의 숭상 등에 의해 문화적 식민지화됨으로써 전통 사회의 붕괴와 이에 따른 문화적 전통의 연속성이 깨어지는 데에서 비롯한다.¹²⁾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2) 임희섭, 한국 사회의 변동과 문화의 변동, (서울: 현암사, 1984), 93-94쪽.

3. 음악 문화의 통합성에 있어서 문제점

위에서 언급한 음악 문화의 적법성과 정체성의 문제는 결국 음악 문화의 통합성 문제로 귀결된다. 음악 문화의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한 음악 문화를 구성하는 음악 문화적 요소들 상호간에 서로 일관성이 없음으로 해서 문화의 혼란이 일어난 사실을 암시한다. 문화 요소들이 잘 통합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회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음악문화적 행위 양식을 이해하기 어려워 서로간의 이해 충돌로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같은 사회 속에서의 가치 유형과 행위 양식은 상황에 따라, 집단에 따라 또는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음악 문화 유형의 일관성, 예측성이 결여되면 사회 음악의 질서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생활로 표현되는 '나타난 음악 문화'와 양식으로 표현되는 '내재된 음악 문화'의 발전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지식층, 부유층 주도의 고도의 음악 문화와 중산층 주도의 시민 음악 문화가 각각 미 정립되어 서로간에 분리, 대비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적합성, 정체성, 통합성이라는 관점에서 본 음악 문화적 위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특정 소수인들 만이 누리는 음악 문화가 전체 음악 문화로서의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음악 문화의 위기 의식은 사회 구조로 보아서 대도시에서 더욱 더 날카롭게 드러난다. 특히 서울 집중화의 결과로 서울 문화를 규범으로 한 전국적 문화 획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음악 문화는 외래 음악 문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채 그 자체가 많은 문화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이를 무비판적으로 모방하거나, 또는 강제적으로 이식될 때 생겨나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다.

IV. '생활 음악'으로서의 음악 문화 환경 조성

음악은 인류에게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문화이지만, 음악 생활의 내부에는 다양한 음악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음악 문화가 존재하자면 우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체는 이 많은 사람들의 구성이 출신지, 교육, 경제, 종교, 직업 등의 관점에서 대단히 다양한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음악 생활 양식은 때로는 음악인들의 가치관, 태도 그리고 행위 유형에 있어서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나타나 비인간적이며,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국면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

한 현상은 서로가 다른 음악 생활 양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차적인 접촉으로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형성, 영위해 나가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거절하는 음악 문화로서 '생활 음악(Lebensmusik)' 문화가 있다. 이 '생활 음악' 문화 환경은 모든 국민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질이 높은 환경이다. '생활 음악'의 문화적 질은 무엇보다도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자아 구현 욕구의 충족을 보장하는 생활과 이러한 환경을 요구한다.

1. 생활 음악의 정의

생활 음악(Lebensmusik)이란 음악 활동을 일상 생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생활 음악의 주 목적은 음악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개발하고, 공동체적 활동을 통한 원만한 인격과 함께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가져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밝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다. 생활 음악은 평생 교육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아에서 고 연령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생활 음악' 문화의 필요성

이미 서론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 음악'은 우선적으로 현대 사회 속에서 점점 사막화되어 가는 인간 정신을 회복시키는 데에 기여하여야 한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적인 현대 사회에서 학교 음악 교육 및 사회 음악 교육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사막화되어가고 있다. 학교의 음악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과목에 밀려나 입시 교육에 방해적인 요소로 전락되어 점차적으로 학교 음악 교육은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 음악 교육은 남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을 부추기며 인간 정신의 사막화에 동조하고 있다. 역시 물질에 눈이 먼 기성 세대들은 청소년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아 소위 문화라고 포장하여 청소년 음악 문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TV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 프로그램을 아주 빠른 템포나 매우 시끄러운 음향 쪽에 지나치게 편중시켜 청소년들의 해방 심리적 욕구에 충족시켜 줌으로써 청소년들을 환상적인 세계, 자유방임적인 도취로 빠져들게 만들어 청소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포악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인간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할 음악을 이렇게 천하게 이용하고 있으니 인간 정신의 사막화는 더욱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판적인 음악교육적·음악문화적 환경을 계속적으로 방치한다면, 우리들은 미래에 있어서 가치로운 음악 생활 그리고 질 높은 음악 문화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위와 같이 그 유용성에서 현저하게 하위 등급을 차지하게 된 음악 문화

의 기류에 따라 정신적으로 사막화되어 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오아시스적인 음악 문화를 창출하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 앞에서 무엇보다도 인류애적 음악 문화에 대한 논의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음악 문화의 패도를 수정해 나갈 수 있을 만한 가치로운 음악 문화의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이러한 음악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사회 음악 교육은 학원을 중심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피아노 교육이 대부분이었으며, 특수 악기의 수업은 비싼 레슨 비용을 부담하면서 개인 교습을 통하여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의 사회 음악 교육은 종전의 음악교육적 상황을 탈피하여 어린이로부터 고 연령층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생활 음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생활 음악의 개발과 그에 필요한 시설·조직·지도자 등의 준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의 장에서는 생활 음악 문화의 환경 조성에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독일의 생활 음악 문화를 고찰해 보도록 한다.

V. 독일의 생활 음악 문화

오늘날의 독일 생활 음악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독일 청소년 음악 운동의 선구자이며, 최초의 청소년 음악 학교를 세우고, 또한 사회 음악 교육 운동에 열정을 쏟았던 독일의 음악교육 학자 프리츠 외데(Fritz Jöde; 1887.8.2 Hamburg-1970.10.19 Hamburg)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¹³⁾ 따라서 제 V장에서는 먼저 외데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¹⁴⁾ 그의 음악교육적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한 '독일 음악 학교 협회'와 '시립 음악 학교'의 역할들을 살펴보

13) 다음 논문은 외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민경훈, "프리츠 외데(Fritz Jöde)의 청소년 음악 운동에 관한 고찰", 음악과 민족, 제 20호, (민족음악학회, 2000) 305-339쪽.

14) 외데는 함부르크(Hamburg)의 교사 양성 학교를 졸업하고, 음악 교사(1908-1923)로서 활동하면서 교육 운동(Kunsterziehungsbewegung), '교육 개혁 운동'(Pädagogische Reformbewegung) 그리고 '청년 운동'(Jugendbewegung)을 전개하였다. 그는 1920년에 음악 대학을 졸업하고, 1923년 케쉬텐베르그의 부름을 받고 함부르크를 떠나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의 '교회 음악과 학교 음악을 위한 아카데미'(Akademie für Kirchen- und Schulmusik Berlin-Charlottenburg)의 교수가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그는 청소년 음악 운동의 지도자가 되어 청소년 음악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시켜 나간다. 그는 1923년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에 최초의 '청소년 음악 학교'(Jugendmusikschule)를 창설한다.

Siegmund Helms u.a., Neues Lexikon der Musikpädagogik(Sachteil)(Kassel,1994), pp. 108-109.

민경훈, "프리츠 외데(Fritz Jöde)의 청소년 음악 운동에 관한 고찰", 음악과 민족, 제 20호, (민족음악학회, 2000) 306쪽.

고자 한다.

1. 외데의 청소년 음악 운동 및 생활 음악 문화에 대한 공헌

외데는 제 1차 세계 대전 후, 국민 생활음악 문화의 개혁적 차원과 인류애적 인간 개조의 차원에서 청소년 음악 운동과 국민 음악 운동을 강하게 전개하였다.¹⁵⁾ 특히, 외데는 산업 사회에서 인간이 기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소외를 염려하여, 협력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면서 합창 동아리를 통한 공동체에서의 즐거운 삶과 협동하면서 더불어 사는 인간미를 요구하였다.¹⁶⁾

외데의 청소년 음악 운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첫째, 이 운동은 강한 인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하나의 문화 개혁 운동으로 나타난다. 그의 청소년 음악 운동은 관습적으로 사회 신분에 따라 특수층에 의하여 지배되어진 음악 문화 대신에 모든 사회 계층을 통합시키려는 범 국민 차원에서의 '새로운 음악 문화 형성'이라는 문화 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¹⁷⁾ 둘째, 이 운동은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새로운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출발한다. 즉, 이 청소년 음악 운동은 전쟁으로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음악을 통하여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그리고 시대의 세속적인 상황을 음악의 힘과 함께 정신(Geist)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개되어진다. 외데는 음악을 단지 인간 삶의 높은 질을 위해서 음악을 교량적 수단이나 여과적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음악이 천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이러한 음악을 인간에게 접하게 함으로써 세속적인 산업 사회에 있어서 음악의 치유적인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였다.¹⁸⁾

2. '독일 음악 학교 협회'의 역할

15) 외데는 청소년 음악 운동의 차원에서 청소년 음악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시켰다. 1952년에는 1954년에는 파사우(Passaau)에서 '청소년 음악 축제'를 열었고, 1957년에는 뮌스터(Münster)에서 '음악·연극·무용을 위한 독일 청소년 축제'를 개최되는 등 모든 지역에서 청소년 음악 운동의 결실을 맺어왔다. 1964년부터는 연방 전역의 다섯 개의 음악 대학들, 즉 쾰른(Köln)·트로싱엔(Trossingen)·하노버(Hannover)·뮌스터(Münster)·에센(Essen) 음악 대학에 국민 음악의 진흥과 청소년 음악의 장려를 위해 '청소년 음악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 과정을 개설하였다.

민경훈, 앞의 책, 330-331쪽.

16) Fritz Jöde, *Musikdienst am Volk-Werkschriften der Musikantengilde, Bd.3*, (Berlin:Wolfenbüttel, 1927), p. 12.

17) 인간을 돌보아 줌으로써 체념의 시대에 밝은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외데는 19세기 특수층의 '연주회 문화'(Konzertkultur)가 국민의 정신적 몰락에 기여해 왔다고 당대의 예술 문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외형적인 면을 중시한 오늘날의 경솔한 음악 연주회는 사라져야 되며, 음악은 모든 사람과 다 함께 축제와 같이, 그리고 진솔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경훈, 앞의 책, 315쪽.

18) 민경훈, 앞의 책, 335쪽.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1952년에 외데의 음악교육 사상을 기초로 '청소년 및 국민 음악 학교 협회' (Der Verband der Jugend und Volksmusikschulen)가 만들어 졌는데, 이 협회의 회장으로 빌헬름 트비텐호프¹⁹⁾가 선출되었다. 그는 이후에 외데의 청소년 음악 학교의 모델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음악 학교들을 창설하는데 주력하였다.²⁰⁾ 1966년에는 이 '청소년 및 국민 음악 학교 협회'는 재단 법인 '독일 음악 학교 협회'(Verband deutscher Musikschulen: VdM)로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독일의 생활 음악 문화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것은 '독일 음악 학교 협회(VdM)'이다. 1966년에 개정된 '독일 음악 학교 협회'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성인을 위한 음악 교육 기관으로서 독일의 '시립 음악 학교'들의 특징을 뚜렷하게 확정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일 음악 학교 협회'는 음악 학교들의 발전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독일 음악 학교 협회'에서 제시한 음악 학교들의 공통된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²¹⁾

- ① 기초적인 음악 교육을 한다.
- ② 음악적 소질을 개발하고 재능을 발견하여 발전시킨다.
- ③ 적극적인 음악 활동을 한다.
- ④ 음악을 통해서 즐거운 생활을 이끈다.
- ⑤ 조기 음악 교육과 기초 음악 교육을 제공한다.
- ⑥ 질 높은 기악 수업과 성악 수업을 제공한다.
- ⑦ 합창, 앙상블, 오케스트라와 같은 공동체적 음악 활동을 지향한다.

음악과 국민의 결합을 목적으로, 외데에 의하여 1923년에 최초로 '청소년 및 국민 음악 학교'가 설립된 이후, 오늘날의 시립 음악 학교들이 존재하기까지에는 '독일 음악 학교 협회'와 여러 협력자들의 노력, 적극적인 연구, 시청의 재정적 후원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협력 등이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음악 학교들의 교과 내용과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조직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실제로 1970년부터는 모든 음악 학교들에 적용되어 실천되고 있다. 여기에

19) 빌헬름 트비텐호프는 청소년 음악 운동의 사상가로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조에스트(Soest)의 음악 학교 교사로서 그리고 도르트문트(Dortmund)시와 함부르크(Hamburg)의 청소년 음악 학교 지휘자로서 자신의 새로운 음악 학교를 설립하였다. 1952년 9월 7일 '청소년 및 국민 음악학교 협회'의 대표가 된 후로 그는 수많은 강연과 논문들을 통해서 음악 학교의 발전 위한 기초를 쌓았다.

20) Wolfgang Stumme, "Die Musikschule im 20. Jahrhundert, Bericht eines Zeitzeugen", Karl-Heinz Reinfandt(Hrsg.), Die Jugendmusikbewegung. Impulse und Wirkungen, (Wolfenbüttel, 1987), p. 259.

21) <http://www.musikschulen.de/Seiten/Struktur.htm>.

‘독일 음악 학교 협회’에 의해 실행되었던 몇몇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자 한다.²²⁾

<표 1> 독일 음악학원 협회(VdM)의 연구 과제들

연 도	연 구 내 용
1968년	조기 음악 교육
1977년	기악 및 성악 교육의 전통적인 양상불
1979년	장애인 기악 수업
1980년	제 문화간의 음악 학습
1983년	췌즈, 민속 무용, 무용
1989년	열린 음악 학교
1990년	성인 음악 교육
1995년	음악 학교의 새로운 과정들에 대한 연구

현 ‘독일 음악 학교 협회’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독일 음악 학교 협회는 독일 16개 주의 지방 협회를 대표하며, 총 본부는 본(Bonn)에 위치하고 있다.
- ② 협회는 음악 학교의 적극적인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책임을 지며, 적합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교육적 조직 편성에 도움을 준다.
- ③ 협회는 정부와 다른 협회에 대하여, 또한 독일과 외국의 음악 활동에 대하여 모든 음악 학교들을 대표한다.
- ④ 협회는 교육적·제도적 장치, 운영 그리고 일반적 문제들에 대하여 음악 학교를 조언해 주고 있다
- ⑤ 협회는 음악 학교의 수업료 면제자들이나 할인 혜택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경제적 보조를 하고 있다
- ⑥ 협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 전문인 단체, 일반 학교들 그리고 음악적 직업을 위한 음악인 양성 학교, 또한 순수 음악 단체나 이외의 모든 음악 문화와 관련된 단체들과 공동으로 활동을 한다.
- ⑦ 협회는 새로운 음악교육학적인 모형들을 제시하고, 실험하고, 발전시킨다.
- ⑧ 협회는 음악 학교의 교사들을 위하여 보습 교육과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세미나를 제공한다.

22) Siegmund, Helms u. a., “Musikschule” Neues Lexikon der Musikpädagogik, (Kassel, 1994), p. 191.

- ⑨ 협회는 각 음악 경연대회와 연주회를 장려하고 음악 단체나 국제적인 음악 행사를 경제적으로 후원한다.
- ⑩ 협회는 음악 학교의 교육 내용, 활동, 그리고 관심사에 대하여 공시한다.
- ⑪ 협회는 출판사를 운영하여 이 협회에 관한 각종 기록들과 교재, 간행물 그리고 음악 학교와 관련된 각종 잡지와 인쇄물들을 제작한다.²³⁾

3. 독일 음악 학교의 제도적 운영

1) 음악 학교와 학생들의 수

시립 음악 학교의 숫자는 1952년 독일 음악 학교 협회가 설립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외데에 의하여 최초의 시립 음악 학교가 창설된 50년 후인 1976년에는 그 수가 약 480여 개에 이르렀으며, 1984년에는 700여 개의 음악 학교가, 그리고 외데의 탄생 100회가 되는 1987년에는 서독에만 726개나 되는 시립 음악 학교들이 존재하였으며, 통독 이후에는 970개의 학교들과 약 1백만 명의 학생들이 여기에 소속되었다(1993년 기준).²⁴⁾ 이들 음악 학교들은 각자의 프로그램 속에 음악 이론, 음악사를 비롯하여 작곡법, 합창, 실내악, 관현악, 각종 악기의 개인 지도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교수 방법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²⁵⁾ 2000년에는 약 1천 개 이상의 학원들과 약 1백 2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약 35,000명의 음악 교사들이 음악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²⁶⁾

2) 음악 학교에 대한 후원자

독일의 시립 음악 학교들은 시청의 재정적 후원과 마을 주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독일 음악 학교 협회에 가입한 음악 학교들 중 약 3/4이 지방 자치 단체(도시·군·읍·면 등)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지방 자치 단체들이 음악 학교에 대한 모든 규정을 적절히 행사하고 있다.²⁷⁾ 199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음악 학교들 중의 약 70.2%는 시·읍·면에서, 28.6%는 협회에서 그리고 1.2%는 장학 재단 또는 유한 책임 회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시립 음악 학교들의 재정과 관련해서, 1995년에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통해 40.7%,

23) <http://www.musikschulen.de/Seiten/Struktur.htm>.

24) 민경훈, 앞의 책, 333쪽.

25) 성경희, 앞의 책, 97쪽.

26) <http://www.musikschulen.de/Seiten/Struktur.htm>.

27) 나머지 1/4의 음악 학교들은 사설 기관이다. 이 사설 음악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다만 바이에른(Bayern) 주에서만 시립 음악 학교와 동등하게 보호받고 있다.

공 기금을 통해 58.2% 그리고 기부금 등의 특별 자금을 통해 1.1%로 음악 학교들의 전체 예산이 약 13억 마르크(약 7,150억원)에 달하였다.²⁸⁾

3) 음악 학교의 교육 목적

음악 학교의 교육 목적은 음악 전문인을 길러내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와 인간적 친밀감을 통해 음악을 생활 문화의 양식으로 이해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키워내는 것을 중요시한다.²⁹⁾ 다시 말하자면, 음악 학교는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천재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외데에 의한 철학을 기초로 생활 속에서 음악을 사랑하고, 아끼며, 즐길 줄 아는 평범한 음악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이다. 오늘날 독일 시립 음악 학교의 공통된 교육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음악 학교에서는 다양한 앙상블, 오케스트라 그리고 합창 등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음악적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음악의 참여와 음악 활동의 흥미를 제공한다.
- ② 공개적인 연주회를 통하여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제공하고, 자신의 음악적 기량을 선보인다.
- ③ 성인들을 위한 음악 교육을 발전시킨다.
- ④ 음악 학교는 적극적인 음악 활동과 다양한 이론 수업들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즐거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⑤ 조기 음악 교육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포괄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적 소질과 재능을 개발한다. 이러한 조기 음악 교육은 조기에 어린이에게 음악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풍부하고 독창적인 능력으로 음악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면서 음악을 내면화시켜, 깊은 음악적 인상을 심어주는 데에 목적을 둔다.
- ⑥ 음악 학교에서의 음악 활동에 관한 내용들을 공개한다.
- ⑦ 음악 학교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인 경우에 한하여 수업료를 면제시켜주거나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³⁰⁾
- ⑧ 다른 예술 분야들(예: 미술, 문학, 연극, 무용, 미디어 등)과 협력하여 활동한다.
- ⑨ 음악 학교 자체적으로 알맞은 교육 방식을 도입한다.

28) 민경훈, 앞의 책, 334쪽.

29) 이재욱, 이명신(1994). "트로싱엔 청소년 음악 학교". 발로 쓴 세계 청소년의 생활과 미래. (서울: 실록출판사, 1994), 246쪽.

30) <http://www.musikschulen.de/Seiten/Struktur.htm>.

⑩ 시대별 음악적 양식과 작곡가에 대하여 학습을 한다.

4) 음악 교사의 현황

음악 학교에서 음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중 18.6%는 전임 교사이며, 81.4%는 시간제로 강의를 하는 비전임 교사들이다. 전임 및 비전임 교사들은 음악 대학 및 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그리고 교회음악 대학 등에서 음악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음악 전공 출신자들로 구성된다.³¹⁾

전임 교사는 현재 1주일에 28~30시간의 수업을 맡고 있다. 학교장도 전임 중의 한 사람인데, 사무나 관리면에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약 절반으로 줄어든다. 전임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급 교사로 수년간 근무하여 좋은 실적을 올려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며, 학교장으로 뽑히려면 또 수년간 전임 교사로서 좋은 성과를 올린 경력이 있어야 한다. 비전임 교사의 보수는 주로 시간급이며, 전임 교사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회 보장 제도에 따라 금액이 추가되어 액수가 많아지고, 사회적으로도 생활이 보장된다. 전임 교사가 되면 음악 학교가 본직이 된다. 그러면 학원 이외에서 레슨을 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 근무 외 시간에 개인적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다. 전임 교사의 수는 작은 음악 학교에서는 교장과 부교장 두 사람뿐인 곳도 있고, 큰 음악 학교에서는 20명 이상이 되는 곳도 있다.

5) 음악 학교의 일반적 수업 내용

오늘날에 있어서 시립 음악 학교는 기본적으로 성악 및 기악 수업은 물론, 음악 이론과 청음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코디언, 만돌린, 크로마 하프나 기타 그리고 전자 악기에 관한 수업을 베푸는 등 음악 학교는 열린 음악 학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앙상블, 그룹 수업에도 큰 관심을 보이는 등 더욱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립 음악 학교들은 민속 음악, 재즈, 댄스 음악, 록 음악, 팝 음악 등 폭 넓고, 다양한 종류의 음악 활동을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하여 자유롭게 개방하고 있으며,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여 조기 음악 교육과 장애인을 위한 음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무용, 미술, 연극 등의 분야와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독일의 시립 음악 학교는 국민을 위한 음악 활동의 중추적인 센터로 자리를 잡고서 독일의 생활 음악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31) 민경훈, 앞의 책, 333쪽.

4. 독일 음악 학교의 기본적 교육 과정 구조

오늘날 독일 시립 음악 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한 기본 구조는 1961년에 완성되어, 노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1969년에 '독일 음악 학교 협회'를 통해 전국에 공포되었다. 이와 함께 각 과목에 대한 지도안은 1979년에 최종적으로 수정·보완되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골격은 각 음악 학교에 도입되어 음악 학교들의 목표와 형태, 운영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시립 음악 학교의 각 단계별 교육 목표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표 2> 음악 학교의 단계별 교육 목표

구 분	교 수 목 표
1. 기초 과정	· 일반적인 기초 음악의 활동 · 음악적인 동기 촉진과 기악·성악 수업에 대비한 준비 · 기초 음악이론 교육, 음악에 대한 관심과 즐거운 생활
2. 초급 과정	· 각 악기에 대한 기본적 연주 기법 · 음악 토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음감 훈련
3. 중급 과정	· 연주 기법의 심화와 창작 능력 개발 · 중급 과정 수료 후, 성적에 따라 고급 과정으로 진급하거나 직업을 위한 음악 교육으로 발전
4. 고급 과정	· 특별한 경우에만 도달할 수 있으며, 음악 대학의 전공 능력과 예술성을 요구 · 음악 활동을 위한 우수한 재능과 수준에 도달하고, 관심이 있어야 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립 음악 학교의 목표에 따라서 교과 과정은 기초 과정·초급 과정·중급 과정·고급 과정의 4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며, 각 과정과 과목에 따라서 집단 지도와 개별 지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교육 과정인 기초 과정은 양자 택일 할 수 있는 두 가지 음악적 지도 방법에 따라서 4~6세 어린이를 위한 '조기 음악 교육'(Musikalische Früherziehung)과 6~8세 어린이를 위한 '기초 음악 교육'(Musikalische Grundausbildung)으로 나뉘어진다.³²⁾ 그 다음에 연속되는 초급·중급·고급 과정의 수업은 전공 과목과 합주를 포함한 보충 과목이 상호 보완적으로 병행되어 진행되고, 각 교과 과정의 수업 목표와 내용은 포괄적인 지도안에 명시되어 있다. 보충 과목은 여러 과목 중에서 선택되며 교실 수업이나 그룹 수업으로서 시작된다. 다

32) <http://www.sulzbach-rosenberg.de/sms.htm>.

음 <표 3>은 음악 학교의 단계별 교육 과정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 3> 음악 학교의 단계별 교육 과정의 구조 (1979년)

구 분	교육 내용 및 교육 목표
1. 기초과정	① 예비반 : 조기 음악 교육(4~6세) · 어린이들의 음악적 가능성을 놀이방법을 통하여 계발하고, 음악적 재능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며 기악 연주를 위한 기본 능력을 신장하도록 편성. · 자체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수업체계가 필요. · 수업은 주당 1회(60~75분) ② 기초반 : 기초 음악 교육(6~8세) · 어린이들의 음악적인 능력을 계발하고, 음악적 재능을 인식하도록 도와 주며 기악 연주에 필요한 기초를 닦아준다. · 수업은 주당 2시간
2. 초급과정	(9~13세 또는 6~11세) · 전공 선택에 따라 기악과 성악 전공으로 나뉘며, 수업 형태는 '집단'과 '개별 수업'으로 이 두 가지 수업 형태의 교환이 가능 · 수업은 주당 '전공 과목' 1시간, '보충 과목'(음악통론, 가창시간, 기악시간, 리듬기법...)1시간이며 수업 연한은 대개 4년.
3. 중급과정	(13~17세 또는 11~15세) · '전공 과목'- 개별 지도, '보충 과목'- 모둠별 수업 · 보충과목(기악 중주, 초보 관현악, 가창, 중창, 실내악, 음악통론, 시창 청 음, 리듬 기법)은 필수과목으로 누구나 이수함. · 수업은 전공 과목은 1시간, 보충 과목은 1~2시간 · 수업 연한은 4년. · 중급 과정으로 진급하는데는 중간 시험이 따르며, 새로 음악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어느 정도인지 심사를 한다.
4. 고급과정	(15~17세와 성인) · '전공 과목'과 '보충 과목'(기악 중주, 관현악, 합창, 실내악, 그와 대등한 분 단 연습)의 수업은 중급 과정과 동일 · 수업 연한 - 제한 없이 능력에 따라 결정 · 중간 시험과 신입생의 심사 과정이 있음

오늘날 시립 음악 학교의 수업 내용은 역시 피아노가 가장 많으며, 학생들도 반 수 이상이 피아노를 배운다. 그러나 최근 15년간 음악 학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은 유아들을 위한 조기 음악 교육 제도이다. 학령 전의 어린이를 연령에 따라서 3·4·5세 아동으로 나누고, 약 10여명 단위로 특정 커리큘럼에 따라 음악의 기초를 가르친다. 학습으로는 행진, 또는 운동을 수반한 놀이를 통해 선율감을 기르는 것이 주된 활동이며, 사용되는 악기로서는 칼 오르프(Carl Orff)의 어린이 음

악 교육법에 적용되는 갖가지 타악기와 리코더가 활용되고 있다.³³⁾ 더욱 더 구체적으로 독일 시립 음악 학교의 조기 음악 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다음 아래에 '쉬베어하우스 음악 학교'(Schwörhaus Musikschule)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기 음악 교육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³⁴⁾

<표 4> Schwörhaus Musikschule에서의 조기 음악 교육 과정

수업과정	수업내용
엄마와 유아	· 일주일에 1회, 60분 수업. · 2세부터 엄마와 함께 즉흥 연주, 놀이 음악, 손동작 등의 수업이 진행되며, 엄마와 아빠들은 유아들을 위하여 노래를 배우고 함께 노래를 한다.
음악과 율동	· 4세부터 2년 동안 일주일에 1회, 60분 수업. · 노래와 춤, 다양한 종류의 타악기 연주를 통하여 노래를 배우고, 음악 이야기와 리듬 놀이 그리고 율동 등을 배운다
티나와 토비 (Tina und Tobi)	· 4세 반부터 2년 동안 일주일에 1회, 60분씩 수업 · 처음으로 악보와 간단한 종류의 박자 개념 등을 배운다.
음악 유치원	· 5세부터 1년동안 일주일에 1회 60분씩 수업 · 모든 아이들은 다양한 음향의 세계와 음표들을 경험하게 된다.
어린이 합창	· 5세부터 일주일에 1회, 60분씩 수업 · 아이들에게 잘 알려지고 좋아하는 동요 등을 합창한다.
리코더 기초수업	· 6세부터 악기 수업을 한다. · 아이들은 소프라노 리코더(Blockflöte)를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한다.

5. 괴핑엔 시립 청소년 음악 학교의 제도와 교과 과정

오늘날에는 시립 음악 학교의 교육 과정의 일반적 제도와 운영, 그리고 수업 내용은 '독일 음악 학교 협회'가 제시한 기준 방침에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음악 학교의 제도와 교육 내용이 거의 비슷하리라는 전제하에 현재 독일의 시립 음악 학교를 보다 더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독일 괴핑엔 시에 소재하고 있는 '괴핑엔 시립 청소년 음악 학교'(Jugendmusikschule

33) 세광음악출판사, "독일의 피아노교육", 음악교육, 1987년 7월호,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9), 73쪽.

34) <http://www.schwörhausonline.de/aktuell.htm>.

Göppingen)의 제도와 교육 과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괴핑엔 음악 학교는 바덴-뷔텐베르그(Baden-Württemberg) 주의 청소년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가 인정하는 음악 교육 기관으로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교육 기관이다. 이 음악 학교에서의 기악 수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은 미리 조기 음악 교육과 기초적인 음악 수업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수업은 놀이 형태로 이루어진다. 수업은 독일 음악 학교 협회에서 제시한 교육 과정에 따라 각 분야별로 수업이 제공되며, 현악기와 탄주 악기들을 기초로 피아노, 성악, 목관 악기, 금관 악기 그리고 타악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업을 베풀고 있다.

1) 괴핑엔 시립 청소년 음악 학교의 운영 형태

<표 5> 괴핑엔 시립 청소년 음악 학교의 운영 형태

설 립 자	괴핑엔 시
음악학교 교장	마르틴 군켈(Martin Gunkel)
교무 부장	토마스 뮐러(Thomas Müller)
협 의 회	시읍면 참사회의 문화 및 스포츠 위원회
학 생 수	1,530명
전체 교사 수	60명
수업 장소	도시 괴핑엔에 있는 중앙 건물 '하우스 일리그' 외에 초등 학교들과 유치원들
사 무 실	Jugendmusikschule Göppingen Haus Illig Raum 22, Friedrich-Ebert-Straße 2, 73033 Göppingen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목요일 : 10시-12시, 13시 30분-16시 수요일 : 13시 30분-16시

위의 도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 수업을 위한 장소로는 본 음악 학교 건물 외에 공공 장소인 초등 학교와 유치원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복리 증진에 있어서 모든 시민의 연대라는 공통된 국민 의식에서 비롯된 실천으로 보여진다. 학생 수가 무려 1,530명에 달하는 큰 규모이지만, 공공 장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음악 수업이 가능하다.

2) 음악 학교의 구조

<표 6> 음악 학교의 구조

음악대학 콘서바토리움 전문대학 직업교육	음악학교 고급과정 - 주 전공: 개인별 레슨 - 주전공 외에 다양한 음악수업들
음악학교 중급과정 - 주 전공에서 개인별 또는 그룹 수업 - 주 전공 외에 다양한 음악 수업들	
음악학교 초급과정 - 주 전공에서 개인별 수업 - 주 전공 외에 다양한 음악 수업들	
음악학교 기초과정 - 초기 음악교육: 4~6세 - 기초 음악교육: 6~8, 7~9세	

다른 시립 음악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괴핑엔 시립 청소년 음악 학교의 교육 과정도 기초·초급·중급·고급 과정의 4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과정과 과목에 따라서 집단 지도와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다.

3) 수업료

괴핑엔 청소년 음악 학교의 수업료 제도는 1999/2000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실행되고 있다.

<표 7> 수업료(1998년 3월 기준)

내 용	수 업 료
초 급 과 정	월 40 마르크 (약 22,000원)
소그룹 과정	월 75 마르크 (약 40,000원)
개 인 레 스	월 140 마르크 (약 75,000원)
악기 임대료	월 15 마르크 (약 8,000원)
	20 마르크 (약 10,000원)
	25 마르크 (약 13,000원)
	악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위의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독일 음악 학교에는 악기를 임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4) 수업료의 할인

독일의 음악 학교에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으로 수업료 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괴핑엔 청소년 음악 학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는 많은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하여 수업료를 면제해 주거나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음악 학교의 수업료 할인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수업료의 할인

종 류	할 인 제 도
① 자녀들을 위한 할인 제도	둘째 자녀에 대하여 : 25% 할인
	셋째 자녀에 대하여 : 50% 할인
	넷째 자녀에 대하여 : 75% 할인
② 그 외의 할인 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수업료 할인 또는 면제를 위한 신청서를 음악 학교 교장에게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수업 내용

괴핑엔 청소년 음악 학교의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9> 수업 내용

종 류	수 업 내 용
조기 음악 교육	초등 학교 입학하기 전 음악 교육
기초 음악 교육	초등 학교 학생들을 위한 기초 음악 교육
성악	발성법, 합창, 인기 가창곡
전반 악기	피아노, 쳄발로, 오르간, 키보드
현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하프
탄주 악기	클래식 기타, 전자 기타, 전자 베이스 기타, 만돌린
목관 악기	리코더,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색소폰, 바순
금관 악기	트럼펫, 호른, 발트 호른, 테너 호른, 트롬본, 튜바
타악기	다양한 타악기들
음악 이론	화성학, 청음, 청소년 오케스트라·청소년 밴드·현악 합주·관악 합주에 대한 기악 이론 등
앙상블	리코더 합주, 타악기 합주,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 중창, 밴드, 실 내악 합주 등

이 음악 학교는 성악과 기악 수업뿐만 아니라, 음악 이론에서 청음 수업과 화성학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앙상블을 통한 그룹 수업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6) 오케스트라와 앙상블을 위한 수업

괴핑엔 청소년 음악 학교는 오케스트라와 앙상블을 위한 수업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음악 학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동하면서 음악적 활동을 하는 데에 있다. 청소년들은 규칙적인 앙상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기량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괴핑엔 청소년 음악 학교는 초급 과정에 알맞은 앙상블을 시초로 하여, 실내악 합주, 관현악 합주, 합창, 합주 그리고 밴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앙상블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괴핑엔 청소년 음악 학교의 앙상블 수업과 관련한 내용이다.

<표 10> 앙상블 수업 내용 (1999/2000년 기준)

수업계획	시간표
리코더(Blockflöte) 오케스트라 (초급과정)	월 16:30 - 17:30
관악기 합주(중급과정)	월 18:00 - 19:30
기타 오케스트라(중급과정)	화 17:45 - 18:45
밴드	화 20:00 - 20:45
어린이 합창(초급과정)	수 14:30 - 15:30
모차르트 오케스트라(현악기 초급과정Ⅱ)	수 14:30 - 15:30
괴핑엔 청소년 오케스트라(고급과정)	수 17:30 - 19:45
관악기 및 타악기 합주	수 17:30 - 19:45
트럼펫 앙상블	수 16:30 - 17:15
성악 앙상블(고급과정)	수 19:00 - 21:00
리더(Lider) 오케스트라(현악기 초급과정)	목 16:00 - 17:00
비발디 오케스트라(중급과정)	목 17:15 - 19:00
목관 앙상블(초급과정)	목 17:00 - 17:45
금관 앙상블(초급과정)	목 16:00 - 16:45
괴핑엔 청소년 밴드(고급과정)	목 18:30 - 21:00
기타 앙상블(고급과정)	목 18:15 - 19:00

7) 음악 활동의 상황

괴핑엔 청소년 음악 학교의 음악 활동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국제 청소년 음악회: 다른 음악 학교와 공동으로 음악회를 개최하고, 또한 국제 청소년 음악제와 해외 음악 연주 여행을 통하여 서로간의 교류를 증진시킨다.
- ② 음악 대학 입학에 위한 음악 수업: 청소년 음악 학교는 특별한 음악적 재능을 보이거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음악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래에 연주자, 관현악단의 연주자, 음악 교육자, 교회 음악가, 음향 기술자 등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강도 있는 음악적 훈련을 시킨다. 이 과정의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입학 시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③ 국제적 음악 활동 교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음악 학교 'Estude Teresa Maria', 오스트리아 비인의 음악 학교 'Albrechtsberger-Musikschule Klosterneuberg', 오스트레일리아의 음악 대학 'St. Petwe College Orchester Brisbane', 노르웨이의 베르겐어 청소년 오케스트라 'Fana Unge Strykere', 헝가리의 음악 학교 'Ferenc-Erkel-Musikschule Budapest'와 자매 결연을 맺어 국제적인 음악 활동을 증진시키고 있다.

VI. 생활 음악 문화의 성장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

1. 음악 문화의 쇄신

문화는 고정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서 변동을 하고, 공간적 차원에서 이동을 하는데, 이 문화 운동의 계기를 쇄신이라고 한다. 쇄신이란 이미 그 문화에 있어왔던 이념이나 사물 등이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현상으로서, 물질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까지 새로운 것이 일어날 때 완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 체계 속에서 음악 문화에도 쇄신이 일어난다면, 문화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양적으로 증가하는 문화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성장된 음악 문화는 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됨으로서 비로소 안정된 문화로 정착하여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음악 문화의 성장이 일어나자면 쇄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문화 요소, 또는 문화 복합이 신속하게 큰 마찰 없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생활 음악 문화 성장의 정책이 생활 음악 문화가 저절로 다듬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시켜야 한다고 볼 때, 이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음악 문화의 또 다른 두 국면인 '음악 양식'으로서의 문화와 '음악 환경'으로서의 문화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주력해야 하는가, 또는 양자를 고루 성장시켜야 하는가 라는 이슈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이슈는 비교적 분명하다. 문화는 양식과 환경의 두 면이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만 문화의 혼돈 현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폐해를 줄일 수 있고, 균형 잡힌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 양식'으로 이해되어지는 문화를 지향하는 '음악 문화의 환경화'와 국민의 음악 생활을 위한 환경의 개선으로 이해되는 '음악 환경의 문화화'는 음악이란 예술 문화를 통해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같지만, 그 의도가 다름으로 해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음악 문화의 환경화는 문화와 도시를 서로 별개 현상으로 보아, 문화라고 오해되는 음악 양식과 그 결과물을 도시 환경 속에 영입하여 도시가 이를 과시하기 위한 배경으로 만들어가는 접근 방법이다. 이 결과로서 일상의 생활과 괴리된 과시적이고, 호화스러운 '전당', '센타' 등이 무리하게 들어선다던가, 혹은 도시 환경의 외관만을 치장한다던가 하는 유감스러운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음악 문화 성장의 기본 전략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생활 음악을 위한 환경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 포괄적으로 생활 음악을 위한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양을 증대시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생활 음악을 위한 환경에 주력하는 전략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점은 음악 문화의 환경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생활 음악 환경의 문화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생활 음악 문화의 성장과 형성

생활 음악 문화의 성장을 위해서 몇 가지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 기본 정책은 정부 당국이 국민을 위한 생활 음악 문화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간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수준까지 이끌어 올리느냐, 또는 민간 측이 자생적, 자발적으로 음악 문화의 쇄신과 이 결과에 따른 생활 음악 문화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느냐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먼저 음악 문화라는 것이 과연 타력에 의해 조성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절로 형성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구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문의 구명을 위해서 다시 문화의 개념을 되살려 볼 필요성이 있다. 문화는 한 사회가 '선택'하고 지키기로 한 약속된 생활 양식이다. 그러

므로 생활 음악 문화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그 생활 양식과 선택에 있어 준거가 되는 가치 체계와 또 그 방법 내지 절차에 있어서 그 사회 구성원의 일반적인 의견 총화가 있어야 한다. 이 점은 이와 같이 선택되고 약속된 생활 음악 문화가 사회 구성원들의 음악 문화적 행동 양식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음악 문화 질서를 구성하고, 동시에 개개인의 집합인 사회 전체를 조절하여 개개인의 욕구를 끌고루 충족시키면서 음악 사회를 유지해나가는 역할을 하는 만큼 더욱 더 그러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생활 음악 문화의 주역은 정부가 아닌 시민 개개인 그리고 개인의 집합인 사회이며, 생활 음악 문화 성장의 주된 내용은 사회 공공의 바람직한 문화 질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문화를 유지하는 음악 사회의 제도적 구현이 국가이고, 국가가 정부 조직의 행정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취하고자하는 것이 바로 문화 질서의 유지이다. 그런 만큼 질서 유지와 새로운 질서의 수용을 통한 생활 음악 문화의 성장에 있어서 정부와 개인의 역할은 분명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역할은 이른바 문화 질서 행정을 통해서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 통념상 수용할 수 있는 행위와 사고 양식의 규범을 민주적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택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역할은 문화 유지와 성장의 주역으로서 이와 같은 규범의 선택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가 혹시 저지를 수 있는 독선과 횡포를 견제하고,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그 선택한 바를 지키려는 약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3. 생활 음악 환경 계획의 주요 과제

음악 문화 기반의 전실화, 음악 생활의 인간화, 음악 환경의 풍유화, 음악 환경의 지역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

1) 자연스러운 음악적 환경의 회복

현대에 있어서 생활 음악은 대중 매체, 컴퓨터 등에 떠밀려 우리 주변 환경으로부터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생활 음악은 감각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지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과 활동이라는 개념에 의해 보다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음악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연적인 요소라는 그 질서에 따라서 건강한 생활 음악이 회복되어야 한다.

2) 시민 예술 문화로의 회복

음악은 특정 소수의 집단이 소유하는 고급 문화가 아니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표현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보통의 시민 예술 문화로 회복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현대 도시에서는 대중으로부터 떠나간 특정 예술 문화를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음악 문화의 형태로 되살림으로써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외경 의식을 일깨우고, 창의적인 생활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공공 장소와 시설의 개방

우리 나라에는 대 도시에 사회 음악 교육 기관들(사회교육원, 문화 센터, 종교 단체, 공공 단체의 기관, 사설 학원 등)이 편중되어 있다. 반면에 작은 단위의 소 지역에는 음악 교육 및 연주 활동의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각 지방에서는 시민 음악 활동을 위하여 공공 장소와 시설물들을 개방하고, 개선하고 또한 확충하여야 한다. 도시나 마을은 사람이 모여 사는 편리함 때문에 생겨난 형태이다. 한 지역에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만나고, 공존하여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를 원한다면, 공공 장소와 시설은 단순히 공리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 소외의 극복과 창의적 환경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질이 개선되고, 양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특히 시민 대부분이 매일 이용하고 시간을 보내는 광장이나, 방과 후 텅텅 빈 학교 건물, 관공서의 큰 시설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과제이다.

4) 공공 음악교육 기관의 설립

전문적인 공공 음악교육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문제이지만, 국민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며, 음악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한 음악을 생활화할 수 있는 생활 음악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음악적 시설과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실력 있는 음악 교육자들을 교사로 둔 사회 음악 교육 기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와 구 단위에서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관장하는 공립 음악 학교들의 설립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이 음악 학교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는 본부를 두고, 이 본부를 중심으로 음악 학교가 서로 협력하면서 균등히 발전되어야 한다. 본부는 모든 공공 음악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과 운영 체계를 규정하여 사회 음악 교육 제도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또한 의식 있는 음악교육 학자들과 협력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미나를 제공하여 교사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하도록 유도하며, 따라서 올바른 생활 음악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의 공공 음악 학교는 기능 위주의 획일적인 사회 음악 교육에서 벗어나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포함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음악 교육의 육성을 꾀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가능하다면, 경제적인 부담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수업료를 할인하는 할인 제도를 두어, 모두가 음악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지방자치적 차원에서 후원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즉, 건전한 국민 정서와 미래의 밝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일관성 있는 제도를 추진할 때, 대도시나 소도시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사회 음악 교육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5) 사회 음악교육 전문지도자 양성

사회 음악교육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는 공공 음악교육 기관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에 수많은 공공 음악교육 기관들이 늘어난다면, 우선적으로 현재 직업이 없는 음악 대학 졸업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며, 기형적인 고액 과외도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시 담당 기관은 사회 음악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인간적이며 실력이 있는 좋은 교사들을 배출해 사회 음악교육 기관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음악 학교 교사 자격을 인정하는 사회적인 법 제도를 만들어 사회 음악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사회 음악 교육에 대한 올바른 교육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그리고 연주자로서 지역 음악 문화 발전을 위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음악 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 음악 교사들의 계속 교육을 위해서 사회 음악교육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6) 다양한 수업 내용

미래의 공공 음악 학교는 기존의 피아노 위주의 사설 학원 형태를 탈피하여, 우리 나라의 전통 음악은 물론 클래식, 팝, 재즈, 대중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수용하고, 또한 목관·금관·타악기 등 다양한 악기 수업들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임으로서 범 국민적인 생활 음악 문화를 선도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음악 학교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음악 교수법의 개발 그리고 교사 양성 제도의 정립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개발하고,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서 어린 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손쉽게 음악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생활 음악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VII.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한국의 사회 음악 문화는 열악한 문화적·경제적 환경 속에서 어느 특정 계층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으로 생각해 기형적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생활 음악 문화의 환경 조성에 대한 계획은 현 한국의 사회적·경제적 실정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생활 음악 문화의 조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의 정신 세계가 갈수록 삭막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수수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생활 속의 자연스러운 음악 활동이 자아의 실현과 풍요로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외데의 교육 사상이 우리 나라 사회 음악교육의 발전과 생활 음악 문화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그의 교육 사상을 기초로 발전한 독일의 시립 음악 학교의 제도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 동시에 한국의 생활 음악 문화의 구축을 위해 몇 가지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음악교육 학자 외데는 생활 음악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청소년과 국민을 위한 '청소년 음악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1923년에 최초의 '청소년 및 국민 음악 학교'를 창설하였다. 이를 계기로 여러 지방과 도시에 수많은 음악 학교가 만들어졌으며, 오늘날에는 독일 전 지역에 약 1,000여 개 이상의 음악 학교가 있으며, 약 35,000명 이상의 음악 교사들이 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다.

'생활 음악 문화'라는 개념이 사회의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활동으로, 평생에 걸친 음악 생활과 이를 통한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음악 문화라고 정의할 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사회적 계층과 연령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쉽고, 자연스럽게 음악 교육과 음악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생활 음악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생활 음악 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별로 많은 공공 음악 학교를 설립하고, 이 음악 학교들을 총 관리할 수 있는 본부를 창설하여 효율적인 음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또한 공공 장소와 시설들을 활용하여 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음악 수업을 개방함으로써, 보고 듣는 수동적인 음악 활동에서 직접 참여하는 음악 활동으로 전개·발전시켜야 하겠다.

이 계획에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처방으로 법제상의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입장에서 생활 음악 문화의 성장

을 음악 문화 행정의 주요한 공식 업무로서 수용하는 것이고,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며, 또한 이용을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생활 음악 문화가 일상 생활과 괴리된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고정 관념을 버리는 것이다. 즉, 생활 음악 문화는 우리 지역의 일상 생활이고, 생활 음악 환경은 이러한 일상 생활이 영위되는 보통 환경이라는 생각이 관할 당국이나 시민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광식 편저, 문학비평 용어사전. 서울: 일지사, 1980.
- 레이먼드 윌리엄즈, 문화사회학. 설중규·송승철 (역), 서울: 까치, 1984.
- 루스 베네딕트, 문화의 패턴. 김열규 (역), 서울: 까치, 1980.
- 민경훈, “프리츠 외데(Fritz Jöde)의 청소년 음악 운동에 관한 고찰”, 음악과 민족. 제 20호, 민족음악학회, 2000.
- 성경희, 음악과 교육론. 서울: 갑을출판사, 1983.
- 세광음악출판사, “독일의 피아노교육”, 음악교육. 1987년 7월호,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9.
- 이광규, 문화인류학 개론. (서울: 일호각, 1980).
- 이재욱, 이명신(1994). “트로싱엔 청소년 음악 학교”. 발로 쓴 세계 청소년의 생활과 미래. 서울: 실록출판사, 1994.
- 임희섭, 한국 사회의 변동과 문화의 변동. 서울: 현암사, 1984.
- 廣瀬鐵雄. ドイツの音楽教育. 東京: 音楽之友社, 1982.
- Helms, Siegmund, u.a.. Neues Lexikon der Musikpädagogik(Sachteil). Kassel, 1994.
- Jöde, Fritz. Musikdienst am Volk-Werkschriften der Musikantengilde. Bd.3, Berlin: Wolfenbüttel, 1927.
- Wolfgang, Stumme. “Die Musikschule im 20. Jahrhundert, Bericht eines Zeitzeugen”, Reinfandt, Karl-Heinz (Hrsg.), Die Jugendmusikbewegung, Impulse und Wirkungen. Wolfenbüttel, 1987.
- 중앙일보, 2001년 5월 21일자.
- <http://www.musikschulen.de/Seiten/Struktur.htm>.
- <http://www.sulzbach-rosenberg.de/sms.htm>.
- <http://www.schwörhausonline.de/aktuell.htm>.

ABSTRACT

Eine Studie über die Förderung der Lebensmusik als Musikkultur

- Zum Vorbild deutscher Verhältnisse -

Unter der Musikkultur im koreanischen Sinn kann man die Musiklebensverhältnisse, die von der oberen Gesellschaft, aber auch überwiegend von jugendlichen Sängern geleitet wird, verstehen.

Industriemagnaten, Führende Gesellschaftskreise, Sendestation und Bankiers usw. bilden einen lieblichen ätherischen Schleier, der vor der Wirklichkeit der Beherrschung unseres musikalischen Lebens durch sie schwebt und sie fast vollständig verbirgt. Diese Herrschaft ist keineswegs eine bloße Liebhaberei oder Laune, um müßige Stunden angenehm zu verbringen. Dabei schaffen sie eine musikkulturelle Fassade, deren Tätigkeit auf anderen Gebieten kaum wohlthätig ist, und weiterhin den mehr offensichtlichen Zwecken der Reklame und des Erwerbs öffentlicher Anerkennung und der Verdummung.

In diesem Hintergrund ist es sehr dringend, eine neue musikalische Umgebung zu schaffen, und zu kultivieren. In dieser neuen musikalischen Umgebung können alle Bürger zu jeder Zeit die musikalische Bildung nehmen, wenn sie musikalisch erfahren wollen.

In Deutschland wurde bereits diese musikalische Umgebung für das allgemeine Musikleben aller Menschen geschaffen und kultiviert. F. Jöde gehört zu den beeindruckendsten Persönlichkeiten im gegenwärtigen musikkulturellen Leben in Deutschland. Er hat die erste Musikschule in Deutschland gegründet. Die Musikschulen sind Einrichtungen der Musikerziehung außerhalb des allgemeinen Schulwesens. Die wichtigste Entwicklungslinie, die zur heutigen Musikschule führen, ist die 'Musikschule für Jugend und Volk', die 1923 von F. Jöde in Berlin Charlottenburg gegründet wurde.

Zur Zeit finden die Musiktage in den Städten und Kreisen in Deutschland statt, und in

einigen Fällen wurde diese Musiktage zum zentralen Jahresfest der Stadt.

Der Verband deutscher Musikschule(VdM) hat entscheidenden Anteil an der Ausprägung der Musikschule in ihrer heutigen Art. Die moderne Musikschule ist vor allem durch folgende Angebote und Merkmale gekennzeichnet: Elementarunterricht(Musikalische Grundausbildung, Musikalische Früherziehung), Vokal- und Instrumentalunterricht, vielfältige Ensemblesarbeiten, Studienvorbereitende Ausbildung, Musiklehre und Hörerziehung, Öffnung für neuere musikalische Stilrichtungen(Folklore, Jazz, Tanzmusik, Rock- und Popmusik), Offenheit für breite Bevölkerungsgruppen, Soziale verträgliche Unterrichtsentgelte.

Was die Vorschläge hinsichtlich der Probleme der Musikkultur in Korea betrifft, sind wie folgt zu beschreiben:

- 1) Der Wandel von der von oberer Gesellschaft geherrschten Musikkultur zur Musikkultur, die das alltägliche allgemeine Musikleben im Zusammenhang mit musikalischen Tätigkeiten der breiten Bevölkerungsgruppen bedeutet,
- 2) Die Erweiterung der städtischen bzw. öffentlichen Musikschulen, und die Herstellung der institutionell eigenständigen Qualifikation der Musikschulen,
- 3) Die Offenheit und die Verwendung des öffentlichen Gebäudes für musikalische Tätigkeiten der breiten Bevölkerungsgruppen, z. B. Grundschule,
- 4) Die Verbesserung der beruflichen Qualifikation vom Lehrer der Musikschule durch den Besuch des Lehrerseminares und durch die Klassifikation des Lehrbefähigungsgrades,
- 5) Die Entwicklung der vielfältigen Curricula in städtischen und öffentlichen Musikschulen.

Besonders sollte der Lehrer der Musikschule durch die Gestaltung einer gefühlvollen Atmosphäre im effektiven Musikunterricht eine emotionale Erziehung ermöglichen. Damit sollte der Musiklehrer durch seine humane Haltung und hinsichtlich der Entwicklung der musikalischen Fähigkeiten der Schüler ständig nach der Didaktik und Methodik in den jeweiligen Schulstufen forschen und seine Schüler zum fröhlichen, wohlhabenden sowie schöpferischen Leben führen.